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2. 7. 21 (목)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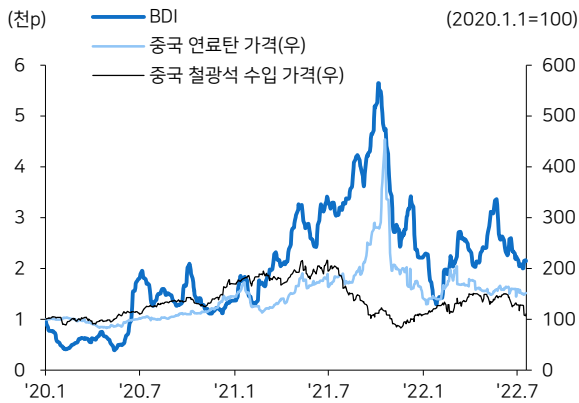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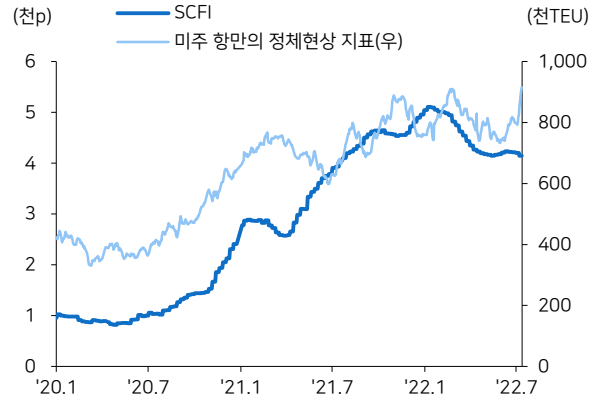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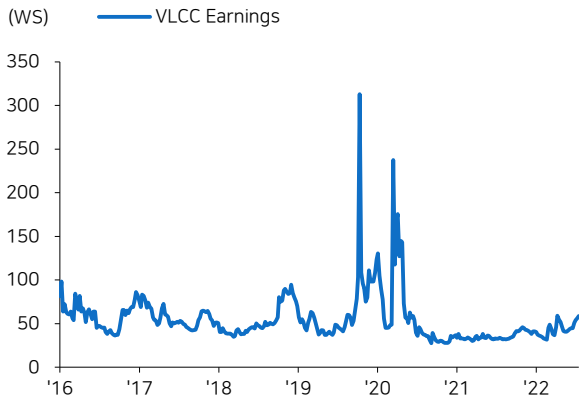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13.0p(-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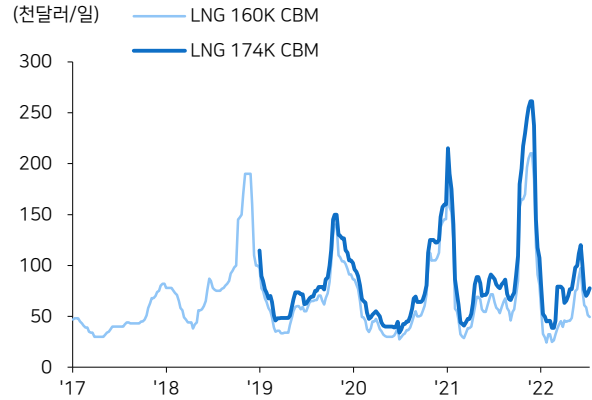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074.7p(-69.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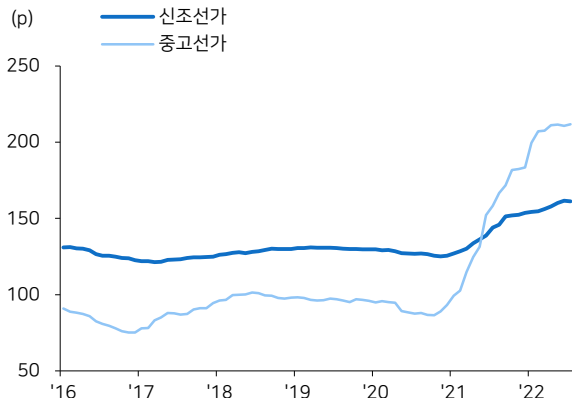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8.6p(+2.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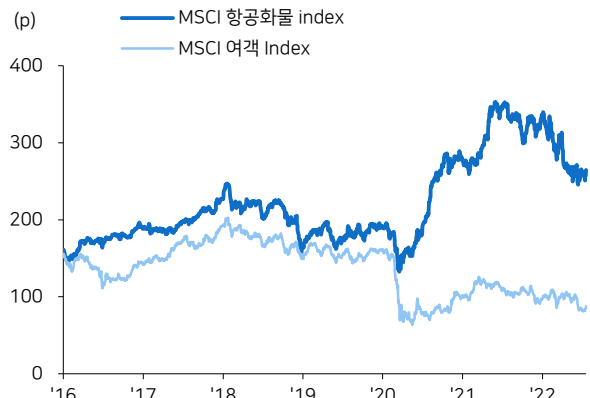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9.5p(-1.8p WoW) / 77.8p(+5.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9p(-0.3p WoW) / 211.0p(-0.7p WoW)



항공시장 지표 264.6p(- DoD) / 87.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MM kicks off five-year growth plan with container ship trio

HMM이 최근 5개년 투자계획의 시작으로 현대미포조선에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4월 18일 발주된 1,800TEU급 선박 3척의 선주로 알려짐. 총 1.06억달러에 계약했고, 2024년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푸틴 "노르트스트림1 터빈 반환 안하면 EU 가스공급 더 감축"

가스프롬이 열흘간의 점검을 마치고 오는 21일 예정대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도됨. 푸틴은 가스관 터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가스관을 통한 공급은 일일 6,000만CBM에서 3,000만CBM으로 줄어든 것으로 경고함. 한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2의 가동을 제한함. 연간 처리량 550억CBM의 절반은 수출할 수 있다고 언급함. (뉴시스)

EU to 'tweak' sanctions to restart Ukraine grain trade

유럽연합이 흑해 항구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제재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도됨. 러시아 7개 은행에 '식량 및 비료 구매, 수입 및 수송'에 관련된 자금을 풀어주려는 방침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에 10,000DWT이상의 선박을 붙잡아 둔 상황임. 국제곡물위원회(IC)에 따르면 7~8월 곡물 300만톤이 수송되어야 올해 추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Tradewinds)

South Africa could host 291 Tcf of gas and 27 billion barrels of oil — government official

남아프리카가 가스 291조큐빅피트, 원유 270억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도됨. 남아프리카 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추수준에서는 해상 가스 4.5조큐빅피트, 육상 1.9조큐빅피트만 확인된 상황으로 설명함. 최대 매장 지역은 Karoo 분지로 209조큐빅피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Upstream)

아시아나항공, 인천~베이징 노선 재개... 2년 4개월 만

아시아나항공이 국적사로는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 인천~베이징 노선을 재개한다고 보도됨. 오는 7월 23일부로 주 1회 인천~베이징 노선을 운항할 계획임. 아시아나항공은 298석 규모 A330기종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조선Biz)

상승세 멈춘 국제선 유류할증료...항공권 가격 떨어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도됨. 국제유가 하락세에 기인함.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인 22단계는 유지되고 있음. 관계자는 국제선 여객 공급이 확대되며 항공권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언급함. 대한항공은 9월 국제선 여객 공급량을 팬데믹 이전 대비 절반 이상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임. (에어진)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